

지구촌 양계뉴스

미국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어야 지구 온난화 방지 도움돼

쇠고기 대신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고 채식을 늘리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의 나탄 펠레티어는 지난 2월 15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회의에서 육우를 기를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 건강도 지키기 위해 쇠고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펠레티어에 따르면 가축 분비물 등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 중 18%에 달하며 이중 육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1kg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16kg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쇠고기가 전체 육류 소비 중 30%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구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선진국에서 내뿜는다는 점을 뜻한다고 펠레티어는 지적했다.

따라서 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쇠고기의 1/10에 불과한 닭고기나, 1/4 수준인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이 펠레티어의 주장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쇠고기 대신 닭고기를 먹을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7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진국 주민들이 연간 쇠고기 소비를 현재 90kg에서 권고 수준인 53kg으로 줄이면 가축과 관련된 가스 배출량이 44% 줄어들 것으로 펠레티어는 내다봤다.

- 인터뷰365

지난해 닭고기 생산량 360억 파운드에 그쳐

2008년 4분기 평균 주간 입란수는 전년 동기보다 7.3% 감소한 1억9천8백만개였으며, 발생된 병아리 생산수수는 6.7% 감소한 1억6천1백만수였다.

이는 도계수수 감소로 이어져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 동기보다 4% 감소한 89억 파운드였다. 2008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2% 증가하는데 그친 369억 파운드였다.

2008년 11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12.0% 감소한 26억6천만 파운드였다.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도계수수가 2007년 동월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계수수가 전년보다 12% 감소한 반면 생체중은 5.61파운드로 전년보다 다소(1% 미만) 감소했다.

2008년 12월 닭고기 생산량은 도계 작업일 수가 2일 추가되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수수 증감에 따라 닭고기 생산량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생체 중은 2007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11월 말 냉동 닭고기 재고는 7억9천만 파운드로 10월보다 3천6백만 파운드 증가했고 2007년 동기대비 15% 증가했다. 통닭 재고량이 2천5백만 파운드로 10월보다 4% 증가했다. 이러한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1월 통닭 가격은 2007년보다 15% 상승했다. 10월과 11월 냉동 재고량(다리, 다리살, 넓적다리살, 1/4 다리살 등)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 말 재고는 2007년 말보다 9천1백만 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9년 재고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11월과 12월 가슴살과 다리살 가격이 서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3분기까지의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2분기 중반 이후 가슴살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다리살 가격이 상승한 것은 수출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10월과 11월 닭고기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슴살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며, 수출 감소로 다리살 가격이 하락했다. 향후 7개월 동안의 가슴살 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2008년 10월 닭고기 수출량은 6억7천만 파운드였으며 11월은 이보다 크게 감소한 5억4

천만 파운드였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10월 중순 이후 다리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11월 대 러시아 닭고기 수출량은 2007년보다 29% 감소한 1억5천만 파운드였다. 부분적으로 대 멕시코와 중국으로의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각각 52%, 48%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닭고기 수출 수요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 USDA

조류인플루엔자 항체 개발

미국 워싱턴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여러 혈청형에 작용하는 인체 항체를 개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월 23일 전했다.

이 항체는 쥐에서 H5N1을 포함한 여러 Influenza Virus A 혈청형을 중화시킨 것으로, 이 항체는 H 항원을 겨냥하는 기존의 항체와 달리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바이러스 구조에 대해 작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혈청형에 작용한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 항체로 방역요원을 보호하고 인체독감에 대한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로이터통신

20대 남성, 20분간 닭날개 203개 '꿀꺽'

20분 동안 닭날개 203개를 먹어치운 남성이

먹기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존 스퀴비(23)는 지난 1월 30일 펜실베이니아주의 연례 '필라델피아 왕볼' 대회에 참가해 순식간에 닭날개 203개를 먹어치는 괴력을 과시했다.

대회 우승으로 스퀴비는 신형 자동차 1대와 7천500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닭모양의 우승 왕관을 차지했다.

'왕볼' 대회는 매해 슈퍼볼이 열리는 주의 금요일에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예년과 달리 프로선수들의 참가가 금지되고 순수 아마추어 참가자들만 경쟁을 펼쳤다.

한편 대회 관계자들은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프로선수들의 참가가 허용돼 올해 대회에서 실력을 과시한 아마추어 선수들과 한판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코피아뉴스

● 일본

국산닭고기 20%서 살모넬라균 검출

일본에서 시판 중인 국내산 닭고기의 20%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2월 3일 보도했다.

이는 유럽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검출된 살모넬라균 가운데는 5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40%를 넘었다

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판 중인 820개 샘플 조사 결과 163개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균은 피부에 부착돼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허벅지와 가슴살에서도 균이 발견됐다.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지난해 2001년 이후 비슷한 규모의 조사가 실시됐으나 감염률은 4~9%에 불과했다.

일본 닭고기에서 발견된 살모넬라균의 대부분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으로, 5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통하지 않는 다제(多劑) 내성균도 45%에 달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나 돼지의 소화기관에서 서식하는 균으로, 감염된 계란과 고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돼 식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70℃ 정도의 고온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조리만 잘하면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일본 전문가들은 닭고기의 생산과 처리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을 완전 제거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소비자가 충분히 익혀 먹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시아투데이

프랑스산 병아리 및 가금육 잠정 수입중단

일본 방역당국은 지난 2월 3일 프랑스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병아리 및 가금류·

육, 닭고기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프랑스로부터 약 190,000마리의 병아리를 수입했으며, 이것은 전체 병아리 수입량의 37%에 달하는 수치이다.

- 로이터

해 지역 주민들에게 ‘닭 조끼’를 짜는 일에 도움을 요청했고 뜨거운 반응 속에서 이내 1,500여벌의 니트 조끼가 모아졌다.

학습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에글린은 “양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죽는지를 보고 ‘버려지는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닭들이 산란을 멈추거나 더디지면 그 개체는 도살장으로 옮겨지는데, 고기로도 쓰이지 않는 그들은 그저 ‘걸러지는 것’일 뿐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닭들이 농장에서 쫓겨나면 오히려 좋은 알을 낳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쇠약해진 닭들 중 60%는 깃털이 빠진 탓에 추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닭 조끼’ 보급을 계획한 이유를 전했다.

보급된 조끼들은 지역 봉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까닭에 크리스마스 테마 조끼부터 알록달록한 문양이나 줄무늬 패턴으로 장식한 조끼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현재 에글린은 다른 자원봉사자 데이비드 도어와 함께 ‘작은 닭 구조 센터’(Little Hen Rescue Centre)를 세우고 지역 농부들에게 무료로 이 조끼를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 서울신문

영국

닭 전용 니트조끼 화제



영국의 한 여성이 ‘닭 전용 조끼’로 지역 내 닭 1,500마리를 구해냈다

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주인공은 노퍽(Norfolk)주의 29세 여성 조 에글린(29).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양계장에서 스트레스로 깃털을 잃은 닭들을 위한 니트 조끼를 보급해 주변 양계장에서 사육되는 약 1,500마리의 건강을 찾아줬다.

에글린이 ‘닭 조끼’를 고안한 이유는 지역 양계장에서 질병이나 스트레스로 깃털을 잃은 닭들이 추위에 시달리며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 건강이 악화되어 산란이 더디거나 멈춘 닭들은 버려지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었다.

이에 에글린은 지난해 12월 웹사이트를 통